

문화

수목, 그 아름다움을 비취

의재미술관, 26일까지 한·중 작가전



박석규 작 '자연의 노래'

의재미술관은 6~26일 한·중국 작가들의 목향 그윽한 수목 작품을 선보이는 '수목, 그 아름다움을 비취는 또 하나의 창'전을 연다.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허달용·곽수민·김종경·이동환·윤남웅·박문종·이규용·허진·정인수·이영·조선아·박석규·최미연 씨 등 한국 23명과 천상보·루안이·원전패이 등 중국 22명이 참여한다.

서구와 다른 동아시아적 수목이 자연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풀어 내는지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다.

미술관 관계자는 "근대 수목화에 서 출발해 현대, 미래의 고민까지 담은 작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수목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의 062-222-3040.

/오광택기자 kroh@kwangju.co.kr

부드러운 바이올린 선을 따라

이형석 독주회, 오늘 전남대 예향홀



이형석(전남대 예술대 교수·사진) 바이올린 독주회가 6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예술대학 예향홀에서 열린다.

지나해 1년간 파리와 브뤼셀에 머물렀던 이교수는 브뤼셀왕립음악원 클럽 교수 등과의 교류를 통해 음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레퍼토리는 프랑수아 고전음악가 르 클레르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3번'과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은

그가 처음으로 무대에서 연주하는 곡들이다.

그밖에 가을밤에 어울리는 베토벤의 작품 '로망스 G장조 작품 40'과 '로망스 F장조 작품 50'도 함께 선보인다.

금호현악사중주단(1990년)과 모나루트 실내악단(1996년) 창단을 주도하며 실내악음악을 알리는 데 힘써온 이교수는 특히 지휘자 조지 옥토프스, 첼리스트 디디에 보스탕 등 유럽 음악인들을 광주에 초청, 많은 무대를 선보여왔다.

피아노 반주는 조현영(전남대 등출강)씨가 맡았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문예지 계간 '광주문학' 가을호 발간

광주시문인협회(회장 노창수)가 발행하는 문예지 계간 '광주문학' 가을호(통권 60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징 '만나고 싶은 사람' 코너에는 전원범 시인(광주교대 명예교수)을 만나 생애와 작품세계를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서연정 편집국장과 이희규·안영옥 편집위원이 전 시인을 인터뷰 했다.

광주문학의 힘에는 강숙자, 문병

란, 범대순, 조연탁 시인의 시를 비롯해 강경성, 김재정씨 등의 아동문학 작품, 강성훈, 문향선씨 등 16명의 수필을 수록했다.

박형구 회원의 소설 '부다페스트의 향기'도 실렸다.

제24회 청소년독후감 공모 입상작과 제16회 근로청소년 문예작품 입상작도 발표했다. 문의 062-227-081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페스티벌 오! 광주 정음성 축제'

가을밤 클래식 향연이 펼쳐진다

12~16일 문예회관·빛고을시민문화관

국내의 음악가로 이뤄진 루미나시아 무대로 시작

유럽 최정상 '비엔나 앙상블' 공연... 국제학술포럼도

'클래식 음악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광주에서 열리는 가장 큰 클래식 음악축제인 '페스티벌 오! 광주 정음성 축제'가 오는 12~16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등에서 열린다.

축제의 서막을 여는 12일(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는 광주문예회관(이하 문예회관)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과 영국 런던 로얄필하모닉 지휘자로 활동 중인 그레고리 노박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무도회, 이치성곡 '정음성 선율에 의한 현악과 플루트를 위한 조곡' 등이다.

13일(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과 영국 런던 로얄필하모닉 지휘자로 활동 중인 그레고리 노박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들려줄 음악은 '정음성 광부들 서곡 주제에 의한 교향적 환상곡',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이다. 특히 현재 음악가인 양성식(바이올린·대구 가톨릭대교수), 양성원(첼로·연세대 교수)씨가 프랑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2중협주곡'을 협연한다.

14일(오후 7시30분)에는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차세대 클래식 스타'는 최근 각종 해외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진 연주자들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제21회 포르투갈제피아노콩쿠르에서 1등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김태형(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 아프리카 니만 국제 마이올린 콩쿠르 1위(모차르트상, 청중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김지연, 역시 같은 대회에서 우승한 서민정, 현재 금호체임버 뮤직소사이어티에서 활동 중인 첼리스트 김민지 등이 무대에 오른다.

16일(오후 6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는 유럽 정상급 연주자들이 결성한 '비엔나 앙상블'이 공연을 갖는다.

'비엔나 앙상블'은 '오스트리아의 광랑'으로 불리는 플로리안 크렘퍼(피아노), 21년간 비엔나 심포니 수석으로 활동한 헤르만트 달트(호른·오스트리아 그라츠 음악대 교수), 현재 비엔나 심포니 첼로 수석으로 활동 중인 크리스토프



그레고리 노박



김태형

그라트너(오스트리아 유엔트 모차르트 콩쿠르 우승), 클레어 돌비(바이올린)로 구성돼 있다. 연주곡목은 프랑스의 '호른 3중주곡 작품 40', 라벨의 '물의 유희', 프랑스의 '피아노 3중주 작품 8'이다.

또 15일(오후 6시) 빛고을 시민문화관에는 민악합주, 무용, 이종찬 가곡 등으로 이루어지는 중국 하얼빈 공연단의 무대와 광주에서 활동 중인 박승우 재즈오케스트라 무대가 펼쳐지며 14일(오전 10시 30분)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 대회의실에서 정음성광주국제학술포럼도 열린다.

티켓가격 2만원, 1만5000원, 1만원. 사당티켓을 활용하면 최대 7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예매는 티켓마루(www.ticketmaru.co.kr) 문의 062-670-7465.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무각사 문화마당에서 만나요

8일 다문화 가정 초청 '달빛 향(香) 바루 연(演)' 콘서트

달빛 아래, 사람 음식 나누며 아시아 문화의 향기에 빠져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오는 8일 오후 7시 광주 삼우지구 무각사 문화마당에서 다문화가족 150여 명을 초청, 음식나눔콘서트 '달빛 향(香) 바루 연(演)'을 연다.



김현욱 김대수

공연단체 달빛 오디세이(대표 김현욱)와 대동문화재단 등이 주관하는 이번 콘서트는 아시아 전통문화 공연과 한국 음악, 가곡, 샌드 애니메이션 퍼포먼스, 판소리 등이 어우러진 퓨전 콘서트 형식으로 준비됐다.

시낭송가 김귀례씨가 황지우 시인의 시를 기다리는 동안을 낭송하며, 한국 가곡 '또 아리랑'과 '바다 아가네'를 소프라노 유영민과 바리톤 김대수가 부른다.

또 작가 주홍씨는 샌드 애니메이션 퍼포먼스 '아시아! 세계와 트라'를 펼

치고, 중국·태국·필리핀 공연팀이 각국의 전통문화 공연을 선보인다.

강지민, 송정라씨가 25현금 중주 '아리랑 변주곡'을 이경숙무용단이 전통무용 허튼춤'을 무대에 올린다. 풍물계 미르의 풍물놀이 한마당과 황연수, 김산옥 명창의 남도 민요와 판소리 공연도 이어진다.

아시아 문화 공감 콘서트는 11월께 아시아문화마루(콘서트홀) 광주에서 열린다. 무료 공연. 문의 062-461-15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판소리 다섯바탕의 멋 한자리에

황토제 내일 정기연주회 빛고을시민문화관

심봉사 눈뜨는 대목, 토끼 배 가르 는 대목, 흥부 박 타는 대목... 판소리 5바탕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 국악 공연이 열린다.

지난 1999년 창단한 전통음악의 맥을 이으며,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국악 창작곡에 선보이고 있는 국악 실내악단 황토제(대표 전미향)가 13 번째 정기연주회를 연다. 7일 오후 7시30분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이번 공연에는 김선재·임교민·이경선·이용탁·박미영씨가 편곡을 맡았고, 소리꾼 윤진철·박복희·염경애·임현빈씨가 '심청가' '수궁가' '흥

보가' '춘향가' '적벽가'를 들려준다. 또 전미향(피리), 이왕재(타악), 이정숙(가야금), 김해정(대금), 강아라(해금), 박은경(가야금), 오백(베이스)씨 등이 악기를 맡는다.

한편 '황토제'는 우리 음악의 정통성을 지키는 한편 국악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국악 창작곡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단체다. 피리, 가야금, 대금 등 전통악기와 첼로, 베이스가타, 신디사이저 등 서양악기가 어우러진 편성으로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문의 010-9212-5430.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11일 야외음악회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대만)은 오는 11일 오후 7시 복지관 야외특설무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가을밤의 낭만'을 연다.

소외계층 공연예술지원사업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여성장애인 합창단 하모니카 공연과 파랑새합창단의 합창, 정규태씨의 색소폰 연주

가 특별공연 형식으로 펼쳐진다.

소프라노 유영민씨와 바리톤 김기보씨가 성악을 선사하고 통기타 그룹 '플로로그'도 무대에 오른다.

현주·박규우·유연이 등 인기 가수 가 출연해 대중가요를 부르고 재즈피아노 무대도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교보생명함남지역본부와 아모레퍼시픽에서 후원한다. 문의 062-513-097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나주혁신도시 전문' (Naju Innovation City Specialized) real estate services,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city development and text about new history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Advertisement for '동명공인중개사' (Dongmyeong Public Broker)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나라공인중개사' (Nara Public Broker)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중앙공인중개사' (Jungang Public Broker)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금당 공인중개사' (Geumdan Public Broker)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기은 부동산' (Geeun Real Estate)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